

‘녹색 열풍’ 그린 이번지 전남이 뜬다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지역인 완도 청산도에서 지난해 열린 슬로 걷기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 4만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1일 ‘충남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남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이 구축된 전남 농산물이 유입될 수 밖에 없어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충남지역 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2 신안군 증도로 가는 길은 언제나 막힌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인증 지역으로 ‘빨리빨리’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면서다. 다리가 놓이고 철부선(鐵浮船)이 사라지면서 판

등을 고려하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판단이 컸다. ‘생명산업’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도 이 시기다.

‘제 1차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업에 팔을 걷어붙인 결과, 지난 2009년 전남 경지면적(30만9803ha)의 33.8%(10만4682ha)를 친환경농업으로 바꿨다. 전국 인증면적(20만1688ha)의 52%에 이른다. 남보다 앞서 생산 기반을 구축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에 전남 지역 농산물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만 2조6078억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지난해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유기농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전남 경지면적의 1%(2754ha)에 불과한 유기농 재배면적을 4만6700ha(15%)까지 늘리고 무농약 농산물 재배 농경지 면적은 9

리가 생겨나고 연간 641억원의 지방세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급성장 추세에 있는 세계 풍력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 시장은 급증 위기가 강타한 지난 2009년에도 42.1%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0년 후에는 지금의 12배인 190만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녹색생태관광의 대표 브랜드 슬로시티=전 세계 국제슬로시티 총회 시장단은 지난 6월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를 둘러본 뒤 “하늘이 내려준 지역”이라고 극찬했다. 기안 루카 마르코니(Gian Luca Marconi) 국제슬로시티연맹 회장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삶이 여유로워지는 ‘느림의 미학’을 잘 실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장흥 유차·장평, 담양 창평 등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인증 지역은 ‘친환경 녹색관광’의 메카를 내건 전남도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증도 태평염전을 찾아 천일염을 체험하고 청산도를 산책하는 여행 코스는 인터넷과 여행책자 등에서 빠지지 않는 상품이다.

과거 ‘굴뚝 산업’만 중시되던 시절 ‘버려진 땅’ 취급을 받았던 전남의 관광 자원이 ‘보석’으로 바뀐 것이다.

전남도는 한발 더 나아가 슬로시티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슬로시티 관광자원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민 맞춤형 슬로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짜임새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절실한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하드웨어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웰빙 라이프, 행복마을=전남도가 2006년 수립한 행복마을은 농·어촌지역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한때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들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은 6년이 지난 현재 도시민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자연을 호흡하는 ‘웰빙 건축물’에 초점을 맞춘 행복마을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외지인들에게 포근하고 인정이 넘치는 정을 느끼게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민박사업으로 거머쥔 소득은 2억 2400만원에 이르고 지역 특산물 판매로 얻은 소득도 17억63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여세를 몰아 올해 20개 마을을 선정하고 한옥 500동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이미 71개 마을, 520동의 한옥은 새로 짓거나 정비 마무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친환경 넘어 세계 최고 유기농업 중심지 서남해안 풍부한 바람 에너지 산업 육성 ‘느림의 미학’ 슬로시티 녹색관광의 보고 웰빙 행복마을 도시민 정착하는 농촌으로

관광객들로 북적댄다.

한때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던 섬은 지난해 관광객만 70만명이 넘는 전국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증도를 포함, 슬로시티 인증 지역인 완도 청산도, 장흥 유차·장평, 담양 창평 등을 찾은 관광객도 100만명에 달했다.

전남이 6년 전인 2005년 ‘녹색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해온 결과로, 이른바 전남의 ‘그린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남은 녹색기술 산업, 환경친화적 모델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성장의 일반적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산업부문은 풍력 프로젝트가 역점, 추진되고 있다. 관광 부문은 슬로시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며 행복 마을은 전통문화 및 친환경적인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명식품산업 육성=전남은 국내 최고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를 넘어 세계 최고의 유기농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중·장기 농촌 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내세웠다. 심각한 고령화와 세계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

만3300ha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았다.

매년 40% 이상 커지고 있는 세계 유기농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농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추진하면서 유통·가공산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해 ‘천덕꾸러기’가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다.

◁‘녹색 바람’으로 시장 선점 마련=서남해안의 풍부한 바람을 에너지화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는 없을까. 전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도 이같은 구상에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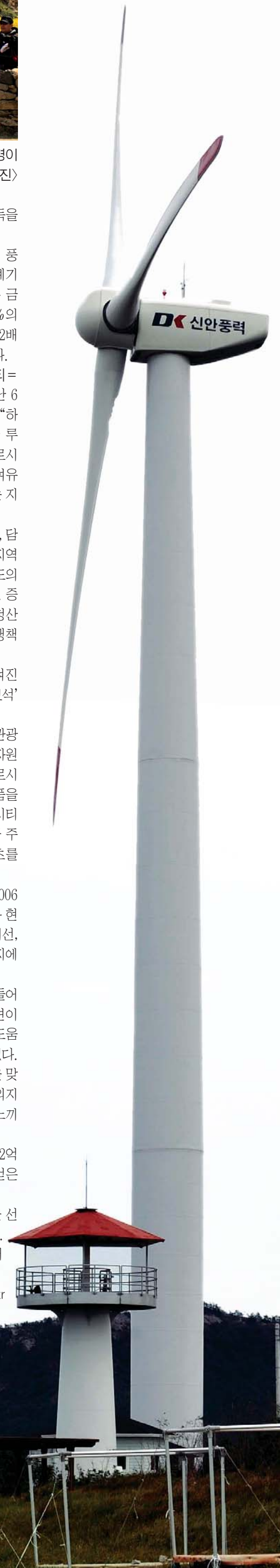
전남도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 서남해안은 7m~8m/s의 빠른 해상풍속을 갖추고 발전잠재량도 1만3893MW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충청남도(6094MW)·전라북도(3456MW)·경상남도(3419MW)·제주(67MW)의 해상풍력 발전 잠재량을 압도하는 최적의 풍력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풍력자원이 우수한 영광·신안 등 서남권 연안 및 해안·해상에 5GW급 발전단지(육상풍력단지 1GW, 해상풍력 4GW)와 풍력설비 전용산단(231만㎡), R&D센터 구축사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2만5500명의 일자

▼ 신안 풍력발전기

신안군 비금면에 동국S&C가 조성한 풍력발전기. 전남도는 서남해안의 풍부한 바람을 활용,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세계 풍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謹賀新年

2007 대한민국특허대전수상
2008 100대우수특허제품선정
특허등록 제 10-0899899호

특허
등록

SR30

세계최초 3면입체 곱프클러브

SR30은 Sweat/땀 / Rain/비 / 30°C 이상의 무더위에서 최고의 쾌적성을 유지하는 기능성장갑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땀 / 비 / 냄새 / 그림력 완전해결

30°C 무더위 빛속의 승리

www.sunglove.co.kr
TEL : 062-610-5454